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후보 이영미입니다.

저는 평생 골프를 동반자로 생각하며 삶 속에 깊이 녹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투어선수로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1985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해 국내 투어에서 3승을 거두고 일본에 진출해 8승을 일궈 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이후는 오랫동안 배운 많은 삶의 지혜들과 열정을 담아 2012년부터 KLPGA 이사로 시작하여, KLPGA 부회장까지 누구보다 협회에 애정을 쏟으며 KLPGA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것을 좋게 봐주셨는지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운이 좋게 2020년 KLPGT 공동대표를 거쳐 2023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행정 실무를 쌓아왔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선수들의 경기속도 개선과 각종 규정 정비를 통해 원활한 경기 운영을 이끌어 KLPGA 경기의 선진화 및 스포츠의 정신을 반영하고자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시청률과 갤러리 수를 높이며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KLPGA 시합의 지속성을 위해 시즌권 판매나 스위트 라운지 도입 등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확장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선수의 편의를 높이며 국내 투어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글로벌 투어 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JLPGA에서 외국인 선수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을 포함한 외국인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협회와 소통하며 해결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 또한 협상력과 설득력의 중요성을 배워 이제는 저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KLPGA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몇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저의 마지막 골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K-팝을 넘어 KLPGA 글로벌 브랜드화 및 세계적 위상 확보
한국 여자 골프는 이미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배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한국 선수들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골프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어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글로벌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K골프의 스타일을 정립하고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선진화된 변화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
골프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PGA는 PGA 선수 스크린 골프 개최하여 타어거 우즈등 선수들 초청 동반 스크린 대회, LIV 시합 등 세계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KLPGA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나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KLPGA가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퇴 선수에 대한 삶의 여정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재정 관리 교육,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삶의 여정을 골프와 함께 마무리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큰 3가지 방향에 대해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뿌리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성장하고 키우고 열매 맺는 것은
후배님들이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투어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끝난 뒤, 집행 임원이 아닌 이사로서,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의 자세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하는 이사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협력과 성장을 바탕으로 KLPGA가 세계 최고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협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4일

성 명 : 이 영 미 (인)

